



이번 우연히 서울 金元全氏의 所藏品 중에서 注目할만한 金銅半跏小像 一軀가 調査된 것은 待望하던 이러한 資料의 하나로서 同學 여러분의 注意를 끌게 될 것임으로 여기에 그 概要를 밝혀

두고자 한다.

이 小像은 언뜻보면 如來形처럼 頭頂이 두드러져있는 寶冠도 寶髮도 없는 上半身이 裸像으로 된 金銅半跏思惟像이다. 七瓣蓮華座의 中心에 놓여진 方形臺座위에 四面으로 裳衣자락을 드리우고 걸터앉았으며 素文으로 된 넓적한 蓮瓣狀의 足座를 밟고있다. 一見해서 이 佛像의 異彩로운 樣式이라 할것은 如來形처럼 보이는 頭部라고 하겠으나 이것을 細密히 살펴보면 相好正面의 머리에 小孔혼적 하나와 두귀위에 小孔이 하나씩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머리뒤로는 左右正面보다는 약간 높은 位置에 突起의 혼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左右와 正面의 이 小孔들은 아마도 따로 마련된 寶冠을 달아 꽂았던 구멍으로 짐작되며 머리뒤의 突起는 寶珠形頭光이 달렸던 자리로 짐작이 된다. 菩薩의 寶冠이나 華嚴具의 一部分을 따로 만들어서 달아매는 예는 이미 三國時代를 비롯한 古代의 半跏像遺例②에서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寶冠樣式의 現存例로는 日本法隆寺의 百濟觀音像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頭部의 樣式과 함께 이 小像에서 가장 注意를 끄는 部分은 素瓣으로 된 七瓣蓮華座의 特異한 形態이다. 七개의 覆蓮蓮瓣의 先端에는 약간씩의 反花가 저 있어서 거의 扶餘軍守里金銅菩薩立像③의 蓮瓣과 같은 印象을 주고 있으며 이 七개의 蓮瓣사이 에 素文으로 된 폭넓은 足座가 마치 蓮瓣처럼 平凡하게 끼어있다. 이 蓮華座全體의 平面을 보면 方形佛臺座의 圓形側面에 平行

해서 어긋려져 있어서 이 部分의 蓮瓣은 圓形하게 表現되어 不整形의 圓形을 이루고 있다(插圖一).

이것은 아마도 이 半跏像이 本尊의 右側脇侍菩薩이었던 까닭에 本尊의 側面에 近接할 面의 蓮華座部分을 平行線으로 주러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推測을 하게 해 준다.

中國에서의 初期半跏像이 脇侍菩薩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瑞山磨崖三尊佛中에 左脇侍가 半跏思惟像④이었음이 여기에 想起된다고 하겠다.

다음 臺座의 四方에 드리워진 裳衣의 褶襞文樣式(插圖二)을 보면 前出平壤平川里出土半跏像前面의 褶襞文 그리고 扶餘軍守里臘石如來座像⑤의 褶襞文과 거의 같은 樣式 印象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兩者의 褶襞이 臺座全部를 덮어서 내린 連續文인데 比해서 이 小像의 경우 方形臺座의 下部를 성큼하게 드러내고 있는 特異한 樣式이어서 마치 平壤平川里 半跏像 褶襞文의 上段하나만을 한층 圖式化해서 四面에 드리운것 같은 簡古한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小像에는 이 褶襞文외의 다른 장식은 一切省略되어 있고 그 相好의 古拙한 아름다움, 그리고 寶冠의 架飾法을 비롯한 各部樣式에 나타난 傍系의 例證들로 보아 적어도 六世紀의 中葉을 前後하는 時代의 作品으로 생각되는 古格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이 小像의 出土地가 寧越이라고만 口傳되었을뿐 出土狀態, 其他 知見을 얻지 못한 까닭에 이 小稿가 未備로 그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이 小像이 內包한 樣式手法은 여러모로 다시 檢討될 餘地가 있다고 생각한다. 愛重한 이 小像의 蓮華座를 비롯한 各部에는 아직도 燦然한 鍍金이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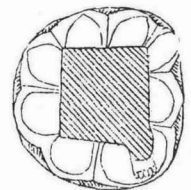


圖 1. (實物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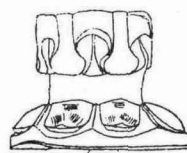


圖 2. 臺座右側面(實物大)

나고 있으며 相好의 部分과 兩腕 등이 多少 磨損되었지만 거의 다시 期待하기 힘든 貴한 資料의 하나라고 해야겠다.

總高 八·五 cm 蓮華座前後徑 四·二 cm 臺座全高三·五 cm

註

① 黃壽永·瑞山磨崖三尊像에 對하여 震壇學報二〇輯所收 一九五九年

② 1、德壽宮美術館所藏 方形臺座金銅半跏思惟像에 도 頭部 三面에 寶

冠을 따로 마련해서 꽂았던 구멍이 남아있다 國寶圖錄第三輯

圖版第九參照。

2、新羅將來佛로 傳해오는 日本京都廣隆寺金銅半 跏思惟像도 寶

冠과 寶髮이 없으며 이것 역시 따로 만들어진 寶冠等을 架飾했

던 것으로 짐작된다。

③ 國寶圖錄第三輯 圖版第五參照。

④ 註① 一同論文

⑤ 國立博物館所藏 扶餘軍守里百濟寺址 木造塔址塔心礎石下發見

梁山龍華寺의 石造如來坐像

鄭 永 鎬



慶南梁山郡勿禁驛에서 約一 km 鐵道沿邊에 자리잡은 龍華寺는 最近에 重葺되어서 建物은 새로운 것이나 이 곳에 遺存하는 數例의 石造遺物은 그 彫刻手法과 樣式이 注目되어 一九六二年 一月과 八

월에 調査한 바 있다. 再調査時 筆者는 洪思俊, 鄭明鎬, 申榮勳 諸氏와 同行하여 많은 助言을 받았음에 感謝한다.

一、石造如來坐像

現在 龍雄殿內의 主尊佛로 奉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江邊밭에(이 곳은 洛東江이 흐르고 그 河岸이 耕作地임) 位置①했던 것을 一九四七年 二月에 法堂을 重創하고 移安②한 바라 한다. 한편 이곳 住持 梁大應氏의 말에 의하면 본래 이坐像은 江津너 金海郡上東面甘露里 寺址③에 있었던 것을 韓末에 前記 江邊으로 옮긴 것이라 하는데 이에 關하여는 記錄이 없고 傳說뿐임으로 再考해야 될 것이다.

佛像은 臺座와 光背를 具存했는데 現在는 上臺뒀던 光背가 놓이는 部分이 若干 破損되어서 光背만은 뒤에 別置되어 있다.

如來像으로서 結跏趺座한 佛像의 두 손은 降魔觸地印을 結하였고 螺髮의 頭頂은 破損되어 若干의 肉髻가 남아 있다. 相好는 圓滿하며 白毫가 있고(現在는 後補物) 三道가 들려 있다. 右肩偏袒의 法衣는 流麗하게 흘러 左腕을 걸쳐 무릎을 덮었으며 그 위에 양쪽 발이 들어나 있는데 손금과 발금 등의 各部表現이 注目된다. 全面에 白粉을 입히고 머리에는 青色, 兩目眼과 口唇等 相好各部에 彩色하여 本然의 尊嚴性을 잃고 있음을 遺憾된 일이라 하겠다. 臺座는 上中下臺로 構成되었는데 上臺만은 黃色, 그 외는 白色의 질은 粉을 입히고 있다. 下臺는 側面까지 마루 밑에 묻혀있어 上面의 八瓣單瓣伏蓮만이 보이고 二段의 角形과 一段의 물뿔받침으로서 八角中臺石을 받고 있다. 中臺八面에는 모두 隅柱가 表現되었으며 各面에는 飛天像과 菩薩像이 陽刻되어 있는데 磨損과 濃厚한 白粉으로 原形을 그릇치고 있다. 上臺石은 複瓣의 仰蓮이 彫刻되었으며 下面은 八角으로 二段의 角形과 임이 있고 上面은 圓形으로 되어 있다. 光背는 粉漆이 없으며 舟形으로서 左便下端에 破損이 若干 있을 뿐 完形이라 하겠다. 頭身光으로 區分되었는데 頭光은 二重輪光으로 八瓣의 單蓮文을 彫刻하였으며 身光은 太二條線內에 아무런 彫飾이 없다. 頂上에는 蓮華座위에 合掌한 化佛一軀를 浮彫하였고 周緣에는 靑은 火焰과 雲文이 彫刻되었으며 左右便中間쯤에